

임신 성병 성도착증까지 호소

상담전회의 27% 차지:交友進路는 10%線

삼각관계 **갈등** 많고 **失戀** 보상받는길 묻기도

담청화	1년동안 청초대상	문제(12%)지문문제(11%)이	18세가 28%	19~20세가 17%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3천3백89	성문제(10%)비행문제(6%)	14세 이하도 가장 많았다.	성문제 비중
성문제로 27%	다듬이 교구	등의 수이었다. 상당부분 연	상당대중을	성문제로
		컬별로 살펴보면 15~16세가	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문제로
		29%로 가장 많으며 17	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대한 부도와의 의견차이
 많았다. 전체의 10%를 차지
 하고 있는 「이성교제」에 대한
 삼남녀용 「교제중의 갈래」가
 40%로 가장 많은데 이성교
 제를 만는 부도와의 갈래는 삼
 각관계로 인한 갈래이며 주로
 호호해왔으며 십일대만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한 경
 우도의 의뢰로 많았다.

한편 전체 삼당의 6%를 차지한 『비현문제』는 당사자 자신보다는 부모 가족의 감담이 많았으나, 습관적인 상전지배인 노·도복 불친절주의와의 관련이 매우 높으며, 학과 제후들이 교우·유주부 휴면·학과 제후들이 등의 주로 지적됐다.

정호법실물제를 부정한 南大門청초년지다유성화 朴基勳(정감사는)『성문제에 대한 청초년의 고민』이란 제목은 사회와 민생된 설계발상조가 갑수성이 예민한 청초년의예의게 자극을 주는데다 가정의 서의 대화부재로 자극과 같은 해소가 어려운 탓』이라면서 자녀들이 자신의 을스스럼없이 털어놓을수있도록 부모들이 대화부여기를 만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지우왕상 김연
한국부인회총합부 (회장)
朴金淳(은) 23일 내한한는美
國연방대법원 판사「산드라」와
오코니「여사」를「초빙」로
성지우의「환상」을 주제로
24일 서울 연세대학교법학대학
서 특별강연을 갖는다.

김치國際化감담회
한국식문화화하는 25일
오후5시 서울中구善堂仁
치박물관에서「김치국제화
에 따른 산업화」를 개최하
나. 김대환 식문화교수 하
국과과학기술원 봉사부「농민
수산부」식문화연구재단
들이참전할이날 김연회와이
석규「김치연구의 현재」의
주제「현재」가 주어진다.



성개방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여제하기 힘드니
성교육등을 성에관한 많은 것들을 견고있다.

을은 원치 않는 임신과 관련된 것이 21%를 차지했으며, 성별을 상관없이 보면 성간간의 관련 것이 20%, 성도전성간 비정상적 성관계에 관한 것이 9%였다. 이중 성적충족과 성간간의 대한 것이 두 학년의 주요 원치 않는 임신과 비정상적 성관계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교우문제」는 친구와 어울리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원만한 친구관계등의 대한 고민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새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다거나 친구와의 불화에 따른 불안감, 교우관계로 인한 학업지장도 있었다. 「친분관계」의 대한 고민이 고민이 많은 것은 친분실현의 어려움, 친화의 대한 전도반측, 친부의

19일 휴장을 받는다. 25명
과 2개 단현의 수상가게운
데 유일한 碧眼의 여성인
「엘라자베스 가브리엘」
「레프」李「여사」(47·前서울
을림관조직외李夏雨사무총
장부인)는 10
오전간 문공
부 해외문화
관장위원이
로 임명되어 국
가훈포의 기
호인 「유니코
드」를장복한
장을 받았다.
李「여사」가 「오리데」 해인회
인장을 찍은뒤에 휴장을 받
았다.그 기행했다.
「반다나」장카사 장판
의 「정체불명」 정조「조」를
감수하는것이 제일이지요.
그 「정체불명」 한두「마」를북아

훈장받은 文公部전문위원 크래프트李여사

나라 국민의 외국 공판 在外
公館을 통해 외국인을 알게
도 널리 알리야 하니까요”
지난 6월 29일의 盧泰愚
언론윤리언을 강조할 때는
자신도 흥분하게 되더라고
수정하는 일이 자신의 몫
이라고 설명한다.

로 여사가 한국인의 아내
로서 한국에 온 것은 76년
美國「아마리칸」대학



한상태였다며 웃는다.

李 여사는 털어놓는다.
李 여사는 한국인들의 영
의 회복이 아니라 문명식화는
미국인들도 할만함을 뛰어나
지만 단 하나 부족한 것이 그
대로 직결하는 경우를 자치
「콜로니시」가 되는일이 있
다. 이것을 「에틸리시」로
적을 얻었다. 이제 한
국이 우리나라지요」 그래서
중3과 국민학교 3학년의
두 딸도 외국인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는데
엄마의 서론 한국말을 곧
잘지적하며 가르쳐 주었다.
〈金順德기자〉

여성초대석 

△金順德기자▽